

이촌 권정달 박사 이촌고택에서 미수연 열어



이촌(泥村) 권정달 박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영창 대총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과 안동권씨 대총회 총재를 역임한 권정달 박사 미수연(米壽宴, 88세)이 6월 14일 오후 4시 안동시 정상동 이촌고택(泥村古宅) 잔디밭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안동권씨안동총친회(회장 권철환)와 안동간고등어(고문 권동순)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대형 부스와 원탁 테이블 각 20개를 설치, 장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거문고와 대금 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대형화환과 화분을 보내와 축하를 하였는데 권영창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금경수 재경안동항우회 회장, 서재익 재경안동고동창회장, 권용성 재구안동고동창회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안동권씨문화원 등 20여명이다.

이 자리에서 여자 사회자와 권철환 회장은 내빈 소개를 하였다. 권정달 부부를 비롯하여 권계동, 권숙동, 권주연 고문, 권재주 안동문화원 의장, 권영창 안동권씨대총회 회장, 김원 전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권오을, 권백기 전 국회의원,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정동호, 김휘동 전 안동시장, 강보영 대한민국 시도민 회장, 안동권씨 각 파종회장, 안동 시내 각 농협조합장, 신계남 동양대 전 교수, 금경수 재경안동항우회 회장, 이영걸 안동한지 회장 등이며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은 탈을 쓰고 잔디밭에서 간단하게 공연한 후 "이촌어른 내외분 영원히 우리 곁에"라고 나무에 글을 새긴 소형 장승을 만들어 권 박사 내외분께 선물했다. 권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사말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농담을 한 후 "첫째 감사하고 고맙다. 둘째 이 자리를 함께해서 감사하다. 셋째 여러분을 뵈게 되니 감사하다"며 간단하게 인사로 끝냈다. 정동호 전 안동시장은 "미수연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수연 준비를 위해 고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

도 했다. 이어 권계동 고문이 개별적으로 선물을, 권기창 안동시의회 의장을 대신해서 배재일 회장이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권정달 박사는 안동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고 30년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뵈자"며 덕담을 했으며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안동에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안동을 빛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12년 후 백수 때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모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권 박사는 안동이 낳은 최고 지도자이다. 고향이 안동인 저는 어디에 있든지 안동을 잊은 적이 없다"며 안동사랑을 강조했다. 금경수 재경안동항우회장은 "권 박사의 고교 후배로 안동에서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축사가 끝나자 잔디밭에 설치된 원탁 테이블에서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며 뷔페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김휘동 전 안동시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하여 분위기를 띄웠다. 2부 행사는 류필기씨가 사회를 맡아 권정달 박사 부부, 권영진 전 대구시장, 정동호, 김휘동 전 안동시장 등 5명이 케이크 절단식을 한 후 병산탈놀이보존회 회원들이 "원님행차"를 공연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권정달 박사는 노래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도 했다. 8.15 해방이 지나 격동기, 6.25 사변, 육사 입학, 민정당 창당, 국회의원 당선 등을 회고한 후 18곡인 "황성옛터"를 부르자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권 박사는 육사 15기로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 제11, 12, 15대 국회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산업은행 이사,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권 박사는 정계를 은퇴한 후 고향인 안동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이사장, 안동과학대학 이사, 안동성소병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과 문중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권영천 보도부장>

권영창 회장 권성동 국회의원 방문

안동권씨 1100년 사업 계획 설명 및 협조 요청

권영창 회장은 6월 22일(목) 13시 30분 취임 인사와 안동권씨 1100년 사업 설명을 위해 권행안 편집국장장과 함께 권성동 국회의원을 방문하였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먼저 만장일치로 대총회 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영주시장, 도의원, 사업 등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 안동권문을 위해 일 많이 하라고 추대된 것 같다고 말하며, 100만 국민의 화합과 대중화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창 회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대총회 자문위원으로 힘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자 권성동 의원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어서 권영창 회장은 안동권씨 110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중회 기구 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시조 태사공 표준영정 제작 및



동상 건립, 능동 성지 조성, 종보 구독 확대 등 1100년 사업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대총회 자문위원으로 힘어는 정도인지, 권행안씨는 어떤 선조인지, 강리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며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안 편집국장

권영창 회장 권은희 의원 등 안동권문 출신 국회의원 방문



권은희 의원실 앞에서, 권영창 회장, 김은지 권은희 의원 보좌관,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안 편집국장(왼쪽부터)



권은희 의원실 앞에서, 권오상 사무총장, 권영창 회장, 조원기 권은희 의원 보좌관(왼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지난 13일 15시 취임 인사차 권은희, 권인숙, 권병호, 권영세, 권철승 의원을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안 편집국장장과 함께 방문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장관직을 수행 중이라 의원실에는 보좌관만 있었다. 마침 국회 일정상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권은희 의원

보좌관 김은지 박사와 권인숙 의원 조완기 보좌관 등에게 시조 표준영정 제작과 시조 동상 건립, 능동 성지 조성 등 안동권씨 1100년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며 대중회 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며 안동권문 출신 국회의원을 안동권씨 대총회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오니 승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행안 편집국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한중관계 논의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이 정대철 현정회장(전 국회의원)과 지난 6월 6일 서울 성북구 주한중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초청 만찬에 참석해 한중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중관계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한중 관계는 '이사 갈 수 없는 선린 이웃'이



권기식 회장, 정대철 현정회장, 싱하이밍 중국대사, 신중식 현정회 대변인(왼쪽부터)

라며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한중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

▲ 권득용 문경문화관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대전디자인진흥원 제2대 원장에 임명됐다. 권 원장은 시인으로서 칼럼집 무진 등을 출간하였고, 2021년 제3회 중앙뉴스 문화예술상 시 부문 수상, 2022년 한국문인협회 제11회 월간문학상 시 부문 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권 원장은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어 대전디자인진흥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17일까지 2년이다.

▲ 권오광 전 DGB 생명 전무가 강원도 경제진흥원 제11대 원장에 취임했다. 권 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중 유니콘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수도권에 있는 영커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 따른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강화를 위한 진흥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원대 토목공학과와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교보생명 상무 등 민간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 권영규(權榮圭, 34세, 59)씨가 지난 2월 1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권영규 박사는 경남 함천군 대병면 장단리 조항마을 애곡지사 뇌산(磊山) 權重璞 선생의 손자이며, 금포(錦圃) 권성삼(權聖參) 선생의 막내아들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으로 30년 넘는 부동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의 변화를 반영한 기대(심리)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도출해냄으로써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지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제41대 수원소방서장으로 22일 취임했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권 신임서장은 1995년 소방간부 8기로 소방에 임용됐다. 그는 오산·화성·안양소방서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원센터·재난대응과·소방행정과 등을 역임했다.

▲ 권정훈(사진 오른쪽) 한국수산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 전 회장이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정훈 전 회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공헌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996년 5월 3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권정훈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권광기(사진 오른쪽)씨가 화재진압 유공자로 지난 5월 1일 청송소방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권광기씨는 지난 4월 3일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였다. 권광기씨는 당시 해당 장소를 지나가는 도중 고추건조기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자 즉시 본인 차량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화재진압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이장에게 화재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 초기 진압 및 소방출동로 확보에 힘썼다.



안동권씨 110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소수서원 등 답사

권영창 회장은 영주에서 권오상 사무총장으로 부터 대총회 고문,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등 대총회 임원 구성과 조직 기구표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영창 회장은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안동권씨 1100년 사업을 추진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임원 구성과 일할 수 있는 조직 기구표를 완료해야 한다. 대총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특히 유물기록관 등 일부는 영주시장 재임 중에 추진했던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도 있어서 사무총장과 편집국장이 직접 답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같이 한번 둘러보라고 말했다.

이에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안 편집국장은 아침 일찍 출발하여 오전 9시 30분경에 영주에 도착

했다. 이 자리에는 권감현 편집위원장, 권중수 상임위원, 권혁태(전 부이사관, 현 영주문화원 부원장) 이사 등이 함께 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일행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마을, 영주선비상, 순흥안씨 추원단을 둘러 보았다. 회현(晦軒) 안향(安享, 1243~1306)의 영정(국보 110호) 등이 보존되어 있는 소수서원의 영정각, 소수서원의 역사와 유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료관 등을 견학하였다. 금장현 소수박물관장은 성학십도 목판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권혁태 이사는 성학십도(聖學十圖) 목판은 원래 이산서원(伊山書院)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2년 권영창 회장이 영주시장 재임 시에 연안김씨 집안에서 영주시에 기증하게 되어 현재 소

수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소수서원에서 소수박물관으로 건너갈 때 본래는 빙 둘러 가게 되어 있었는데 권영창 회장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 개울을 곧바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우여곡절 끝에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 주었다.

마침 소수박물관 별관 기획전실에서 5월 3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선비, 꿈과 이상을 걸다. 현판(懸板)'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어서 권혁태 이사 집안에서 기증한 현판도 관람할 수 있었다. 그 현판은 화수현(花樹軒, 권기수 權期壽, 북아강파 21세) 선생이 안동에서 영주로 입향한 후 일족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16세



영주 선비상 앞에서 권중수 상임위원, 권영창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안 편집국장(왼쪽부터)



안항선생 영정



영정각



현성비, 500만원, 1000만원 등 현성금 금액과 이름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있다.



순흥안씨 시조단 앞 현수운동에 의한 기념석수 모습



현수, 1994년 4월 5일 순흥안씨 시조 31세손 행정서기관 삼파대총회 감사 병정